

南北韓 高等教育의 異質性 극복

李 圭 煥

(梨花女大 教育學科)

1

남한과 북한의 어느 한쪽이 물리적 힘에 의해서 분단된 조국을 統一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平和的인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금일에 있어 대다수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南과 北의 高等教育의 이질성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작업은 통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예상되는 高等教育의 異質性을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克服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고등교육의 이질성에 대한 學問的 新明은 물론 물리적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통일의 성취를 시도하려는 경우에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질성에 대한 학문적 인식이 있어야 상대방을 부정하고 공격할 수 있는 理論的 根據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과 공격을 목적으로 해서 수행하는 이질성에 대한 연구에는 眞實性·科學性·實證性이 결여되고 있으며 그것은 虛偽性과 偏頗性을 수반하기 쉽다. 이에 반해서 협상을 전제로 한 이질성 연구에 있어서는 科學性 또는 客觀性의 확보가 요구되며 統一된 새로운 세계를 指向하는 民族的이고 歷史的인 위업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教育學的 認

識을 할 수 있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東과 西의 냉전이 종식되고 정치·경제·교육·문화 등에 있어서 양측의 이질성을 극복함으로써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흐름이 급류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南과 北이 평화적 통일을 위해 相互接近하고 協商하기 위한 전제하에 고등교육의 이질성을 살펴 본다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교육 기관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민족의 문화 유산을 전달하고 새로운 문화 및 지식을 창조하며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의 과학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정치사회적 요원을 육성하는 場이 되고 있다. 南과 北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등교육의 여러 기능은 공통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이념, 제도의 구상 및 운영 방식, 교육 방법 등에 있어서는 이질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남과 북 고등교육의 이질성은 여러 면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本質的으로 이질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이를테면 ① 大學教育의 理念, ② 고등교육 제도 運營의 主導權, ③ 대학의 社會教育的 機能의 수행 등에 관하여 비교 분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남·북한 고등교육의 이질성을 논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大學의 理念이다. 대학의 이념에는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고 있다. 북한의 대학 이념은 맑스·레닌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남한의 대학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의 대학교육 이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에 투철한 革命指向的 人間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명 지향적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민족 간부가 될 수 없다. 북한 대학의 교육 목적은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로 무장하고 정치적으로 훈련된 민족 간부를 국가 건설과 민족의 융성 발전을 위해서 육성하는 것이다.”¹⁾ 북한 대학의 교육 이념은 초·중등학교에서 명시된 궁극적인 교육의 지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북한의 전 교육 제도의 일반적 교육 목적은 김일성이 교시한 대로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노동 계급의 혁명 위업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²⁾

이에 대하여 남한의 대학 이념은 본질적으로 自由民主主義 教育哲學에 기초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법 제 108 조에는 “대학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하고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은 탈정치적으로 진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대학 이념은 서구의 전통적인 대학 이념과 미국의 실용주의적 대학 이념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것같이 보

인다. 교육법에 제시된 대학의 목적은 서구 대학 이념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오한 학문적 이론의 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형성을 강조하고 직접적으로 정치·경제에 관계시켜 설정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구에 있어 전통적인 대학 이념을 제시한 독일의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에 의하면, “대학은 고독(Einsamkeit)과 자유(Freiheit)를 향유하고, 직접적인 사회적·경제적 관계에서 해방된 순수한 학문 연구를 수행하는 전당이다.”⁴⁾ 훔볼트는 교수의 자유와 학습의 자유를 중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생각했다. 학교에서 교수하는 사람은 학습자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대학에서는 양자가 평등한 권리를 갖고 純粹學問을 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대학이 점차적으로 전문적 직업을 위한 양성소가 되어 가고 있고, 교수하는 자는 학습자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 대학 이념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서구 전통적 대학 이념이 남한의 대학에서도 公的으로 법률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남한의 대학교육은 反共主義를 지향하고 있어 탈정치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남한에서의 반공지향적 대학교육의 이념은 역대 문교부의 장항 방침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968년 2월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은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기관의, 국가가 생각한 교육 이념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헌장에는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어떠한 정신을 갖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 국가가 생각한 理想의 人間이란 사회적 倫理意識에 투철하고 國家意識 및 反共思想이 강하고 이러한 것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새 역사의 창조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反共의 道德人의 형성이 교육의 이념이 되는 것이다. 대학의 주요 행사에

1)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론, 동경: 미레사, 1974, p.17.

2) 박승덕, 사회주의 문화건설 이론, 평양: 사회문학출판사, 1985(서울: 조국출판사, 1989, p.118).

3) 문교부전 편찬회 엮음, 교육법 문교부전, 교학사, 1981, p.25.

4) M. Schelsky, Einsamkeit und Freiheit, Bertelsmann Universität Verlag, 1971, p.73.

서 국민교육헌장을 기관장이 낭독하고 국민교육헌장의 정신에 기초해서 교수 요목을 작성한 ‘국민윤리’를 모든 대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할 교양 과목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남한의 대학 이념이 실제적으로는 반공인의 형성이라는 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南과 北의 대학 이념은 極度로 異質인 것이며, 이러한 대조적인 이질성이 상이한 대학교육의 지도 및 내용의 성격에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로 南과 北 고등교육의 이질성은 그 制度를 조직·운영하는 主導權을 어느 집단이 가지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勞動黨이 고등교육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산 국가에 있어 공산당이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도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당연지사로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레닌(W.I. Lenin)은 한때 “공산당의 과제는 자본주의자들에 대한 모든 저항을 승리로 인도하기 위해 革命的·政治的 투쟁을 할 뿐만 아니라 理念的인 투쟁을 하는 것이다”⁵⁾라고 말한 일이 있는데, 이념적 투쟁이란 바로 교육·문화적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레닌의 교훈을 본받아 교육 사업에 대한 노동당의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교육의 기본 원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교육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라는 주제가 독립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 제도에 대한 당의 지도·감독을 얼마나 중요시 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 ‘테제’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 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교육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을 철저히 당적인 교육, 노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며, 교육 사업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교육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는 본질에 있어 정책적 지도이며 정치적 지도이다.

교육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중심은 교육 사업

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당의 교육 제도를 정확히 집행하도록 옹호·지도하는 것이다. (...) 학생들에게 맡겨진 기본 혁명 과업은 학습을 잘 하는 것이다. 당 조직들은 학생들이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 과업으로 내세우고 정열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생들 속에서 학습 기풍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대학생들의 전공 분야 학과목에 정통하고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완전히 소유하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단련시키는 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⁶⁾

북한에 있어 교육행정 기관은 노동당의 교육 정책을 실천화하는 집행 기관이다. 각급 학교를 행정 관리하는 각 지방의, 이를테면 도·시·군의 교육행정 기관은 각 도·시·군 당위원회와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지만, 모든 고등교육 기관은 ‘대학당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김정일의 ‘전국 교육 일꾼 열성자 대회의 참석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면, 대학 당 위원회는 대학의 교수 교양 사업과 교직원과 학생들의 정치 사상 생활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대학의 최고 지도 기관이다. 이 위원회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교수 교양 사업을 비롯하여 대학의 전반 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해 나갈 수 없다.”⁷⁾ 북한에서 노동당은 당 정치 사업과 교육행정 사업을 밀접하게 결합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어야만 대학의 교수 교양 사업이 당의 교육 정책에 따라 정확히 진행될 수 있으며, 당 정치 사업이 교육행정 사업을 성과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에서 고등교육 기관을 총체적으로 행정 관리하는 최상부 기관은 중앙 정부의 ‘高等敎育省’이다. 그러나 이 좁은 자율적으로 고등교육 제도를 구상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당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성의 관리들은 누구보다도 黨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5) E. Hoernle, *Grundfragen Proletarischer Erziehung*, Fisher Taschenbuch Verlag, 1973, p.136 재인용.

6)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평양위원회, 제15기 제14회 총회에서 발표, 1977.9.5.

7)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대하여—전국 교육 일꾼 열성자 대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7.20)”, 제1일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위원회, 1984, p.36.

것이 요구되고 있다. 김일성의 교시에 따르면, 고등교육 행정에 종사하는 “교육 일꾼들은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당의 모든 대내·외 정책을 다 잘 알고 있어야만 당의 요구대로 민족 간부들 키울 수 있으며 그들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할 수 있다.”⁸⁾ 대학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혁명 사상과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당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 革命課業 수행으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 수 있는 민족 간부로 학생들을 육성하는 것이 북한 대학이 성취해야 할 본질적 과제로 되어 있다.

북한 대학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도 勞動黨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는 1961년에 당에서 창안한 ‘만 페이지 책 읽기 운동’이다. 당의 설명에 따르면, 1년이 365일이지만 좀 여유를 두어 300일로 잡고 하루에 30페이지 조금 남짓하게 책을 읽는다면 1년에 만 페이지를 넉넉히 읽을 수 있다.⁹⁾ 당은 ‘만 페이지 책 읽기 운동의 노래’를 만들어 전국의 대학에 보급하고 책 읽기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만 페이지 책 읽기 운동’의 중요한 목적은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모든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건실한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 인재로 준비시키는 데 있다.”¹⁰⁾ 당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책 읽기 운동은 “위대한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학습하기 위한 충성의 책 읽기 운동이며 인류가 도달한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의 책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깊이’ 읽기 위한 정력적인 科學探究運動이다.”¹¹⁾

북한에 있어 고등교육 제도 운영의 주도권은 거의 전적으로 勞動黨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어느 의미에서 북한의 대학은 ‘당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남한에 있어 고등교육 제도 운영의 주도권을 일률적으로 어느 집단 또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배하는 정당, 이를테면 집권 여당이 대학교육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집권당은 고등교육 정책에 관심을 갖고 고등교육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 문교부장관에게 조언을 하고 있지만,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대학의 行政管理 또는 教育事業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일이 없다. 남한에서는 대학에 정당이 어떠한 형태로서든지 관여 또는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또는 괴이한 일로 생각하는 풍조조차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서 당이 고등교육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한의 대학 세계에서는 극히 이질적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이다.

남한에서 대학을 지배하는 집단은 북한에서와 같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이다. 북한에서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대학을 지배하는 집단은 勞動黨 하나지만, 남한에서는 대학을 제도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의미에서 制度的 지배와 質質的 지배가 일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學園의 民主化가 촉진화되어 감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국립대학을 지배하는 것은 文敎部이고, 사립대학을 지배하는 것은 해당 대학의 理事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립이나 사립대학을 지배하는 것은 교수협의회와 교수 집단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회와 같은 학생 집단일 수도 있다(이러한 현상은 아직 한국에서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사립대학은 自律性이 크게 제한되어 法的으로나 實際的으로나 문교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서구의 대학은 교수 집단이 주도권을 갖고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 예로 영국의 대학은 중앙의 教育·科學省(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에서 行政·

8) 김일성동지 로작해설 편집부, 고등교육 사업을 개선하는 데 대하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59에서 재인용.

9) 금성출판사 편, 주체의 학습론, 평양: 금성출판사, 1982(서울: 미래사, 1989, p.149).

10) 동계서, p.151.

11) 동계서, p.151.

管理·運營되어 오지 않고, 각 대학의 '전체교수회의'가 대학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敎育·科學省에는 '대학 보조금 위원회'가 있어 각 대학에 보조금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이고, 좁은 高等教育 改革을 構想하고 大學發展을 위한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도 히틀러 통치시대를 제외하고는 교수단의 권한이 대단히 강했다. 오늘날에는 대학의 권력을 邦文敎部가 반을, 교수 집단이 나머지 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독에서는 아직도 敎授의 自治的 傳統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학을 운영·관리하는 최종적 권한을 '대학 이사회'가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 교수단이 이사회와 주권을 둘러싼 싸움에서 우세하게 됨으로써 대학을 운영하는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에는 교수단을 대신하여 학생들이 대학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하나의 중요한 대학의 문제가 되었다. 물론 서구의 대학에서도 敎授의 權限이 약화되고 학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대학에 있어서도 學生들의 학원 민주화 운동은 그들이 대학의 行政 管理에 참여하고, 敎育課程의 조직 및 운영에 발언을 하고 敎授에 대한 評價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한 대학의 학생 집단은 구미의 학생들과 같이 消費者의 性格을 갖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소비자란 생산자의 대립 개념으로 대학이라는 '슈퍼마켓'으로부터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아 들이는 사람을 의미한다.¹²⁾ 受動性은 消費者로서의 학생의 典型的 特性이다. 수동적인 소비자로서의 학생은 자신을 본의 아닌 포로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학습하는 데 일종의 즐거움을 느끼려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學位 또는 資格證의 取得이기 때문에 他律的으로 學習하는 것이 습성화 되고 있다. 학생의 존재는 大學의 存立과 發展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 되고 있다. 학생은 대

학에 대해서 대학 운영비를 지출해 주는 재원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직접 대상이고 대학이라는 敎育體制의 存在를 正當化하는 근거이다. 또 학생은 대학에 대한 평가 및 대학의 사회적 위신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대학의 사회적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지표는 입학한 학생들의 질 또는 그들의 학력이기 때문이다. 消費者로서의 학생들이 모인 대중화된 대학에서는 그들의 어느 무엇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敎授의 權限이 약화된다.

소비자로서의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영향을 받게 된다. 대기업일수록 물질적 보수를 종업원들에게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생들은 규모가 큰 산업체에 취업할 것을 갈망하는 경향이 생긴다. 학생들은 재학시에 知性의 陶冶와 연구적 학습에 의한 學問性의 深化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기업체에 취직하기 위한 시험 준비에 전념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의 대학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대학'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남한의 대학은 원칙적으로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으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와 같이 당에 의해서 지배되는 단일한 大學像이 아니고, 대학을 지배하는 요소가 다양한 여러 형태의 대학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이를테면 文敎官僚의 대학, 財閥理班舍의 대학, 敎授의 대학, 消費者로서의 學生의 대학, 企業家의 대학 등으로 부를 수 있는 여러 모습의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의 대학은 북한의 대학인들에게는 극도의 이질성을 지닌 것으로 보일 것이다.

세번째로 南과 北의 고등교육의 이질성은 大學의 社會敎育과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남과 북의 고등교육 제도는 공히 社會敎育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사회교육적 성격을 지닌 고등교육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지표 및 내용 그리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의 이질성은 극심하다.

북한에서는 국가의 기본 목표인 사회주의 혁

12) D. Riesman, On Higher Education—The Academic Enterprise in Era of Rising Student Consumerism, Jossey-Bass Publishers, 1980, p.421.

딩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량의 民族幹部 養成을 ‘人民經濟發展 제 7 개년 계획(1961~1967)’을 계기로 하여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는 기존의 정규 대학만 가지고는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따라서 기술계 대학의 신설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기술 요원으로서의 민족 간부 양성을 지향하는 소위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을 많이 설치할 필요성이 생겼다. 근로자들이 생산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야간 및 통신교육 제도를 확충하고, 공장대학·농장대학·어장대학·공산대학 등 사회교육적 성격을 지닌 대학을 창설하게 되었다. 현재 북한에는 공장대학만 해도 5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학은 노동계급 속에서 새로운 인텔리를 대량으로 양성하여 社會主義 혁명 과정에서 先導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대량 확보한다는 주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조선로동당 제 4 차 대회’(1961년 9월 11~18일)에서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은 더 많은 기술간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기술 간부에 대한 양성하는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기관들을 확장하여 간부 양성의 질은 높이는 데 커다란 힘을 들였습니다. 5 개년 계획 기간에 대학은 19 개로부터 78 개로 증가하였으며 대학생 수는 5 배로 증가하여 9 만 7 천 명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에서 이탈되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 및 통신 교육망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대학들인 공장대학과 공산대학을 창설하였습니다. 지금 20 여개소의 중요한 공장 기업소들에 공장대학이 조직되고 각 도 소재지에 공산대학이 설치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수 많은 혁적 노동자들과 지방 정권 기관 및 경제 기관 일꾼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는 일반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기술 간부를 양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은 생산 기

지일 뿐만 아니라 간부 양성의 기지로 되었습니다.

공장대학과 공산대학들이 창설된 후 1년 간의 경험은 공장들에서 대학을 능히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학들이 많은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노동계급 속에서 새로운 인텔리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하며 교육과 생산, 이론과 실천을 가장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많은 핵심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이탈되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생산과 기술의 발전은 더욱 촉진되고 있습니다.”¹³⁾

북한의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체제는 온 사회를 인텔리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일의 말에 의하면, 온 사회에 革命的 學習 氣風을 세우기 위해서는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이 대학 졸업 정도의 지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기관의 설치와 함께 온 사회에 혁명적 학습 기풍을 세우야 한다.¹⁴⁾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에서는 技術教育과 政治思想 教育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정치사상적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勞動階級的 認識을 각성시키고, 이를테면 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인텔리화하고 혁명적 인간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인텔리는 고등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상적 인텔리상은 교육의 지표와 그 지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설정된 교육 내용에 따라서 상이하게 형성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을 포함해서 북한 고등교육의 전 체계에서 인텔리화를 지향하는 교육의 지표를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⁵⁾

- ① 인텔리의 당성을 강화하고,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인다.
- ② 인텔리의 머리 속에 잔존하고 있는 소부르조아적 사고를 일소한다.
- ③ 인텔리는 내부적·외부적 반동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사상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④ 인텔리들이 노동자 계급과 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그들을 유도한다.

13)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제 2 집)”, 1980년 1월, pp.28~29.

14) 김정일, 전계서, p.24.

15) 김일성동지 로작학습해설 편집부, 전계서, 1975, pp.8~29 참조.

사회교육적 고등교육 시설로서의 ‘共産大學’은 사회주의적 인텔리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전형이다. 공산대학은 6·25 전쟁 이전의 道黨의 학교를 1960년에 개편하여 각 道 인민위원회의 소재지와 주요 공장 지대에 설치되었다. 공산대학의 본교는 각 도 인민위원회 소재지와 산업 중심 지역에 설치되고, 기타 공장 및 기업소에는 제 1분교를, 농장에는 제 2분교를 그리고 분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기업소·농장의 근로자를 위해서는 통신학습반을 설치하고 있다.¹⁶⁾ 공산대학에서는 생산·기술·교육과 사상교육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공산대학에서는 사상교육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북한과 같은 ‘일하면서 배우는’ 전문적인 고등교육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과 같은 직장인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독립된 교육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남한의 대학은 일반적으로 서양의 대학, 특히 미국 대학을 모델로 해서 조직·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기능 수행에 있어 ① 교수하고 연구하는 것, ② 직업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 ③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 3의 대학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는 1970년대에 들어서 남한의 대학에서 한층 더 중시하게 되었으며, 社會教育 또는 平生教育의 간판을 내걸고 사회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학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사회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종전의 폐쇄된 대학을 사회인에게 개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사회교육연구소’, ‘평생교육원’, ‘지역사회개발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와 같은 이름을 붙인 기관을 설립하거나 ‘주부대학 시민 강좌’와 ‘농민교육 강좌’ 등을 설치하여 지역 성인을 위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80

년대 후반기에 계획적으로 사회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에 30개 가까이 있었다.¹⁷⁾ 종전의 정규 대학이 정부의 지시 또는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그 문을 개방하고 지역 성인을 위해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의 開放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나는 정규의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개방제와 또 하나는 단순히 교양 강좌나 오락 및 취미 활동을 지도하는 사회교육과 같은 것을 실시하는 개방제가 있다. 영국과 미국의 대학에서는 그러한 두 종류의 개방제가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지만,¹⁸⁾ 남한의 대학에서는 학위 수여와는 관계 없는 社會教育을 위한 開放制를 실시하고 있다.

남한의 대학에서 실시되는 사회교육에서는 북한의 대학에서 실시되는 사회교육에서보다 정치사상적 색채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이에 대한 근본적 이유는 전자가 全體主義的 社會主義를, 후자는 自律을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自由民主主義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남한에서 대학이 주관하는 사회교육 활동이 전적으로 자율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1982년 12월 31일에 공포된 ‘사회교육법’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 ‘사회교육법’ 제 8조에는 교육과정에 국민 교양에 필요한 일정한 교육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과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 3조에는 그러한 교육 내용으로 국사교육, 국민윤리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통일안보교육, 새마을교육 등에 관계되는 내용을 총 학습 시간의 1할 이상을 필수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 따라서 대학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 과정에는 국민 교양에 관계되는 학습 내용을 최소한 내용 전체의 10%는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수 학습 내용이

16)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단(1945~1982), 1983, p.1292.

17) 최정숙,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학연구회 편,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사회교육 기능에 관한 연구”, 현대의 사회교육, 서울: 정민사, 1986, pp.223~224.

18) 이규환, 한국평생교육기구 편, “서방 선진국 대학의 확장교육 및 성인 계속교육”,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서울: 평민사, 1988, pp.210~223 참조.

19) 대한민국 사회교육법 제 8조와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 3조 참조.

모두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북한 대학에서의 사회교육적 학습 내용에 비교해 볼 때 정치사상적 색채는 훨씬 덜한 것이다.

3

南·北韓 大學의 異質性을 克服하는 과정은 分斷된 조국의 평화적 統一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이질성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을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고등교육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우리들은 결감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대학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의 과정은 대학의 이질성을 概觀의 또는 科學的으로 認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科學的 認識이란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개인적 경험 및 계급적 상태에 사로잡힌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사물과 사회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적 현상이나 사회적 현상을 야기시키게 된 역사적·정치경제적·사회적 諸要因을 社會科學的으로 剖析해 보는 것은 과학적 인식을 촉진할 수 있는 기본이다. 따라서 전에 논의한 남·북 대학의 이질성을 이데올로기적 편견 없이 고찰하고, 이질성을 포괄하게 된 여러 요인을 社會科學的으로 探究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제 1의 전제가 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교수의 자유와 학습의 자유 등에 대해서 그리고 남한에서는 맑스·레닌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사회주의 교육학 원리 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할 때, 이를테면 양측이 상대방의 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基本的인 理念을 客觀的으로 理解하고 있을 때 이질성의 극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이질성에 대한 이해는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여는 제 1의 조건이다.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의 과정은 고등교육 지도자 또는 관계자들이 남·북의 대학을 相互訪問하여 대화하고 이질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學術的 會議을 개최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되는

문헌을 수집하고, 대학의 운영자·교수·학생들과 대화하며 대학의 이질적 현상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共同研究 집회를 갖는 것은 종전에 갖고 있던 편견을 극복하고, 통일된 후의 이상적인 대학의 모형을 공동으로 구상해 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 대학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세 번째의 과정은 相對方 대학의 長點을 참고로 해서 高等教育의 改革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북한측에서는 教育課程 구성의 融通性, 교육의 價值的 認識에 있어서의 多樣性, 교육에 있어서의 國際的 視野의 擴大 등을 남한의 대학에서 참고할 수 있다. 남한측에서는 勞動과 知的 教授의 결합, 고등교육 計劃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처,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체제의 확립, 勤勞者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을 북한의 고등교육 제도로부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극심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相互否定的 태도를 止揚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배워 자기 발전에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진된 먼 나라로부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同族끼리 배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서독의 사회민주당 정권이 10년제 종합학교안(Gesamtschuleplan)을 구상하고 실천화하는 데 있어 동독의 10년제 의무교육 제도를 참고하였고, 역으로 동독이 언어교육을 개혁할 때 서독의 언어교육 과정을 참고로 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남·북한 대학의 이질성 극복은 일시에 비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시켜야 할 성격의 것이다. 한국의 대학은 고등교육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기대되고, 또 그렇게 할 위치에 있다. 새로운 학문적 이론, 새로운 과학 기술, 새로운 문화는 현대 사회에 있어 대학의 산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大學의 知性과 良心으로 남·북한 고등교육의 異質性을 克服하고, 分斷된 민족의 평화적 統一을 앞당기는 課題를 성취하는 데 대학이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인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